



좀 웃기는 친구 두두

장주식 글 | 허지영 그림 | 문학동네

초등 2학년 이상

책 소개

마을에 하나뿐인 아이 루아는 집 뒤편에서 길고양이 두두를 만난다. 루아는 자신을 ‘좀 웃기는 편’이라고 소개하는 이 고양이와 웬지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고 유쾌한 두두는 루아를 웃게 만든다. 그렇게 둘은 곧 친구가 된다. 고양이 두두는 또래 친구가 없어 텔레비전으로 심심함을 달래던 루아를 집 밖의 자연으로 끌어낸다. 두두와 함께하니 너무나 익숙했던 동네는 루아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된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두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재밌을 줄 모르고 지나쳤을 동네와 자연의 품에서 루아는 탐험하듯 놀며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책 속에서

“두두, 나랑 친구 할래?” “친구? 그게 뭔데?”

“같이 노는 거야.” “노는 거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고양이는 없지.”

활동1

나랑 친구 할래?

루아 동네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루아 앞에 길고양이 두두가 나타났어요.

노는 거라면 자신 있는 고양이 두두.

친구는 같이 노는 거라는 말에 루아와 두두는 친구가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친구란 어떤 건가요?

두두,
나랑 친구 할래?

친구? 그게 뭔데?

같이 노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친구란?



활동2

두두를 따라서 둘레 탐험!

텔레비전으로 심심함을 달래던 루아는
두두 덕분에 집 밖 둘레를 제대로 탐험해 볼 수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두두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곳.
루아가 탐험한 순서대로 → 를 그리고,
루아가 탐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말풍선에 써 보세요.



흙벽돌 집

두두가 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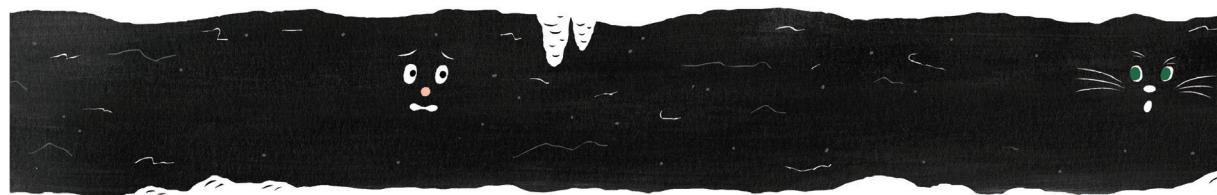


마고 바위 웅덩이

도롱이와 다롱이가 사는 곳

쑥부쟁이꽃이 가득 핀 들판





샘이 풍풍 솟는 동굴



모래밭



도리섬을 둘러싼 샷강

도리섬

여울이가 사는 곳



활동3

만나고 싶은 동물 친구, 식물 친구

작은 돌멩이, 돌 틈 사이 도마뱀, 바람에 흔들리는 쑥부쟁이꽃….

자연 속에 있다 보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만나고 싶은 동물 친구, 식물 친구를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